

# 부산교구 제4차 평신도 아카데미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주제성구 :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Vos enim estis templum Dei vivi. 2코린 6,16)



■ 일 시 : 2022. 11. 5.(토), 13:30~16:30

■ 장 소 : 주교좌 남천성당 대성당



천주교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목 차

I. 일정표 .....	03
II. 시작기도 및 인사 .....	04
1. 시작기도 .....	04
2. 회장인사 .....	05
III. 강연 .....	08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1. 기조 강연 .....	08
2. 주제 강연 .....	32
IV. 토론자 발표 .....	56
1. 황정섭 (루피나) 수녀.....	56
2. 김 철 (토마스 아퀴나스).....	65
3. 도용희 (토마스 아퀴나스).....	73
V. 질의 및 응답 .....	88
VI. 총평, 교구장 말씀 및 강복 .....	88
별첨 1. 질의서 .....	89

**I** | **일 정 표**

진행 : 선교사목국 부국장 / 안원철 (펠릭스) 신부

일 시	내 용	
13:00~13:30 (30')	접수 / 안내	
13:30~13:35 (05')	시작기도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기도
13:35~13:40 (05')	회장 인사	교구평협 회장 최재석(사도요한)
13:40~14:10 (30')	기조 강연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장 곽용승(요셉) 신부
14:10~15:00 (50')	주제 강연	청소년사목국장 윤정현(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15:00~15:20 (20')	휴 식	화장실 안내 / 질의서 작성 및 제출
15:20~16:00 (40')	토론자 발표	토론자 - 살레시오수녀회 황정섭(루피나) 수녀 - 청소년사목국 김철(토마스 아퀴나스) - 前) 교구평협회장 도용희(토마스 아퀴나스)
16:00~16:20 (20')	질의/응답	선교사목국장 최재현(베드로) 신부
16:20~16:30 (10')	총평/강복	교구장 손삼석(요셉) 주교

진행 : 선교사목국 부국장 안원철 (펠릭스) 신부

## 1. 시작기도

###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기도]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하느님 백성으로 부르시어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어, 교회와 사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실천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인생의 참뜻을 발견하고  
세상의 온갖 유혹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인의 드높은 품위를 지켜가게 하소서.
-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도직에 부르셨으니  
성령의 불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과 힘을 합쳐  
이 세상에 진리와 자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 아멘.

## 2.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인사

‘우리는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확실히 믿는 것을 지키십시오.”(2티모 4,15)

교구평협 회장 / 최재석(사도요한)

‘성체와 말씀의 해’를 잘 살아내셨습니까?

좋으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교구민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부산교구 평신도 아카데미가 오늘로 네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계속되었다면 올해가 다섯 번째이지만 2020년은 코로나의 강풍이 너무 거세게 불어서 개최하지 못하고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교구장님의 사목 지침에 따라 ‘성체와 말씀의 해’를 보냈습니다. 개인과 본당 공동체는 ‘1)성체와 함께 2)말씀과 함께 3)지구와 함께’한 삶이었습니까? 진지하게 자신과 공동체에 자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개선하고 보충하여 채워 나갑시다. 이 지침이나 활동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꾸준히 노력하여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확실히 믿는 것을 지키십시오.”(2티모 4,15)라는 티모테오서의 말씀처럼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산교구는 올 한해 교황님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교구민이 읽고 묵상한 자료를 ‘가톨릭 부산’ 교구 주보와 유튜브에 올려서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읽고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생활 안에서 지구 살리기 실천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은이 하느님의 기쁨, 교회의 희망입니다.**

교구장 주교님께서서는 2022년 청소년 주일(2022.5.29.)에 발표한 담화문에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신앙적, 사회적 어려움에 교회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해야 하며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성직자, 수도자, 부모, 교리교사와 또래 친구까지 힘을 합쳐 그들이 신앙적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책임자로 나서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는 젊은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로 영적 지지를 해 줄 것을 호소하며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 절정의 꽃을 오는 11월 19일 젊은이의 날에 활짝 피울 예정입니다. 또 우리는 매일 미사 전후에 바치는 ‘젊은이를 위한 기도’(교구장 인준 기도문) 중에서 이렇게 기도 해 왔습니다.

**“하느님의 기쁨이며 교회의 희망인 젊은이가 잃어버린 신앙의 감각을 되찾아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와 지혜를 청하나이다.**

**그러하여 젊은이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매일 뿌리내리고**

## **꽃 피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라고 기도 했습니다.**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영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갑시다. 그것만이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 **시노달리타스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산교구는 2021년 10월 27일 ‘교구 단계 시노달리타스 진행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1월 3일 첫 모임을 통하여 모임과 대화, 경청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교구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견을 수렴했고, 이후 교구는 본당 주임신부, 특수 사목 신부 및 각 기관에 대화와 경청을 위한 모임을 독려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지난해 겨울부터 올 6월까지 세계 주교 시노드 교구 단계를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교우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본당과 단체에서 교우들은 소그룹 경청 모임을 통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체험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서로 동반하고 경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하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배려와 식별을 통해 의미 있는 결실을 함께 이루어 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교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노드 정신의 구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극복하며 이 여정을 계속 걸어갑시다.

Ⅲ

강연 - 기초강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장 / 광용승(요셉) 신부

202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sup>1)</sup>에 의한 감염자들은 현재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한 보건 당국자들의 언론 인터뷰<sup>2)</sup>를 보면, 팬데믹(pandemic)의 위기 상황이 엔데믹(endemic)은 아니더라도 위드 코로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끼쳤던 영향들을 객관화하면서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공동체와 함께 하는 미사의 중단과 본당에서의 신앙 모임과 활동의 중지는 교회 공동체와 신자들에게 깊은 혼란과 긴 침묵의 시간을 갖게 했다.<sup>3)</sup> 이로 인해 신앙인들의 신앙적 약화와 어려움이 초래되었음을 교회 기관의 설문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sup>4)</sup> 비록 교회는 온라인 미사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신자들과

1) 이하 코로나19로 약칭함.

2) “다음 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노컷뉴스 2022.9.2., <https://www.nocutnews.co.kr/news/5822122>; 2022년 9월 26일부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3) 참조: 정희완, “코로나 시대의 신앙: 종교사회학적 교회론적 전망에서”, 『가톨릭신학』,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21년, 8 참조.

소통하려고 노력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저 상황이 빨리 해소되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만을 기다리는 것 뿐이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은 교회의 모습(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을 성찰하고, 미래를 위한 쇄신과 변화를 준비하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즉 이 시간은 교회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시작할 것인지(resume), 아니면 새롭게 시작할 것인지(renew)를 결단하는 기회이다.<sup>5)</sup>

코로나 사태를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난 것은 교회가 세상 안에서 하느님 현존과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구현하고 증거해야 한다는 소명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에 적극적 협조와 대응에 머물렀을 뿐 더 큰 복음의 빛을 발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반영하는 엠브레인 리서치, 2020년 조사에서 보면,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종교계의 위상은 앞으로 낮아질 것 같은 생각이다”에 동의한 비율이 56.8%이며, 종교를 갖지

---

4) 가톨릭신문사와 우리신학연구소는 2021년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포스트 팬데믹과 한국 천주교회 전망에 관한 의식 조사’를 가졌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 ①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신앙 공동체의 위기 징후 확인 ② 의미의 위기를 겪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교회적 응답 요청 ③ 기후 위기, 생태·환경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그에 따른 실천 계획 요청 ④ 지역 사회 안에서 본당의 공적 역할에 대한 재고와 이에 부합하는 신앙인 상의 구체화 ⑤ 위드 코로나 시대 사목 원리로 삼아야 할 시노달리타스(경동현, 이미영, “팬데믹 2년, 교회의 사목적 대응과 전망 그리고 가톨릭 시민의 가능성”, 『神學展望』 215(2021), 33)

5) 변미리, 최영균,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과 가톨릭 교회의 역할: 수원교구를 중심으로”, 『이성과 신앙』, 70(2021/여름), 수원가톨릭대학교 이성과신앙연구소, 17.

않은 사람들이 앞으로 ‘종교를 가져볼 생각이다’는 비율도 2016년 조사의 26.6%에서 2020년 조사에서는 17.6%로 상당한 비율로 감소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에서 종교계가 차지하는 위상은 예전과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종교가 가지는 카리스마적 권위와 영향력은 오늘날의 세속화 시대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은 있으나, 코로나19는 이러한 권위와 영향력의 쇠퇴를 더 가속화시켰다.<sup>6)</sup>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0 분석 보고서」(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에 의하면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12월 기준) 전국 16개 교구 신자 수는 592만 3,300명으로 전년도 대비 0.1%(8,631명)만 증가했으며, 이 수치는 산술적으로만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 천주교회 신자 수 증가율이 거의 7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또한 세례를 받은 사람은 3만 285명으로 전년도 8만 1,039명보다 무려 62.6% 감소했다. 모든 교구에서 60% 안팎의 감소율을 보인 가운데, 국방부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된 군종교구의 감소율이 78.7%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이듬해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1 분석 보고서」에서도 한국 천주교회 신자 수는 593만 8,045명으로 전년 대비 0.2%(14,754명) 증가로

---

6) 지앤컴리서치, “기독교에 대한 대 국민 이미지 조사 보고서”, 2022.4.29. 여기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 호감도가 ‘나빠졌다’가 52.3%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한국 교회의 호감도가 크게 나빠진 것으로 분석했다(참조: 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빅데이터로 본 2021년 한국 교회 4대 이슈(2021.12.30.)’; 마크로밀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1』, 시크릿하우스, 2020, 209.

전년 대비 0.1% 늘어났지만, 코로나19 이전 2019년도 증가율(0.8%)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우리 교회는 감염병 시대에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면서, 종교의 역할과 개인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실현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물음과 향후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 평신도 아카데미의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선정하고 고민하고자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고무적 활동이다. 또한 주제 성구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2코린 6,16)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으로 정한 것은 교회인 우리 모두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더욱 복음적 존재, 하느님 현존의 도구가 되어야 함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혜안이 돋보인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은 기존의 사회적 관습과 일상의 삶을 중단시키는<sup>7)</sup> 수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하였지만, 자본주의의 물결에 젖어있는 우리의 세속성도 멈추게 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물질주의의 추구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와 훼손은 우리 인간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 생존의 위협은 어렵고 가난한 이들에게 치명적이며, 약자들을 살피지 않는 세상은 이 약자의 아픔과

---

7) 코로나19 시대의 사회적 거리 유지와 비대면의 확대는 4차 산업과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상을 앞당겨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무인화와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피해로 말미암아 인류 모두가 고통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곧 감염병들의 저주는 지구촌이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음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인류 모두가 함께 대응하고 서로 돕고 생태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됨을 성찰할 수 있었다. 이는 물질주의의 맹목적 추구와 풍요가 우리 인간의 행복과 충만을 보장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sup>8)</sup>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의 일상이 멈추었고, 이 멈춤으로 우리는 성찰(듣고, 볼 수 있었음)했고, 이 성찰을 통해 이제 교회는 비본질적인 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분이 가리키는 교회의 본질에 더욱 충실한 교회로의 전환을 위한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위기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갈 길을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 실현<sup>9)</sup>으로 제시함으로써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교회의 쇄신과 변혁을 이끌고자 하신다.

---

8) 이를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중 말씀을 통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의 유혹에 맞서, 그리고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 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기를 빕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 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들을 거부하기를 빕니다. 생명이신 하느님과 하느님의 모상을 경시하고, 모든 남성과 여성과 어린이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기를 빕니다”(프란치스코 교황,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강론”, 『일어나 비추어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년, 30).

9) 시노달리타스를 화두로 던진 교황에게서 우리는 세상과 인류와 함께 가고자 하는 그의 마음과 인류와 함께해야 하는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의 미래는 시노달리타스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에게는 인류와 함께 가는 정신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다.

제삼천년기 교회의 구현 정신으로 제시한 시노달리타스 실현이 우리 교회의 화두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것이다.

##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한국 교회 단계의 성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필자는 이 시노달리타스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고자 한다.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시작되었던 시노드의 여정을 16개 교구에서 각각의 방법대로 교구 시노드를 행하였는데 이 결과의 종합 안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교구의 시노드 여정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요청한 대로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sup>10)</sup> 대화하며 성찰과 희망을 가지고 쇄신과 회심의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각 교구 시노드의 종합을 한국 교회의 교구 책임자 모임<sup>11)</sup>을 거쳐 한국 교회 시노드의 종합을 한국가톨릭사목연

---

10)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신명 6,4).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하느님의 나라가 손이 닿는 곳에 있다는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귀를 기울이어야 한다. 사랑의 근본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어라.”하고 귀를 기울이게 하고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라고 주목시킨 다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신명 6,5)라고 말한다. 주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듣는 마음 없이는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다는 것이다. 듣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11) 한국 주교회의의 단계의 시노드 모임(Synodal Meeting of the Episcopal Conference of Korea, 이하 ‘한국 교회 교구 책임자 모임’)은 주교회의 총회에서 선출된 주교회의의 대표 옥현진 주교를 중심으로 각 교구 책임자와 남녀 수도자 대표(2명), 평신도 대표(4명)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2022.6.28-29.). 모임에서는 교구 단계의 결과를 공유하

구소가 정리하였고 이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주교회의 총회를 통해 최종 식별할 것이다.

한국 교회 교구들은 2021년 10월 15~17일 개막 미사를 시작으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친교, 참여, 사명”을 주제로 열리는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의 여정을 시작하였다. 전체 하느님 백성이 이번 시노드 여정에 참여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구마다 자체 연구와 홍보, 교육을 시행하였다.<sup>12)</sup>

더불어 주변부(변방)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교구도 눈에 띄었다. 냉담 교우, 장애인, 이주민, 난민, 성 소수자, 북한 이탈 주민, 타교파·타종교인, 일반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직접 만남을 갖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교구도 있었다. 어린이, 청소년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주교회의(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에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워크북을 배포하였으며, 몇몇 교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한가운데서 진행된 한국 교회 시노드의 처음

---

고, 주제별 토의를 진행하여 국가 종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12) 교구마다 다양한 홍보 인쇄물이 제작 보급되었으며, 특히 몇몇 교구에서는 홍보용 영상을 자체 제작하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의견 수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뉴미디어의 활용이 두드러졌다. 예외적 사항으로는 광주대교구는 이미 진행 중인 ‘하느님 백성의 대화’(2020-2022년)를 통해 세계주교시노드의 정신과 여정을 밝고 있었고, 대전교구는 2021년 6월 11일 당시 교구장 주교였던 유흥식 주교의 성직자성 장관 임명으로 교구장 공석 상태였기에 이번 세계주교시노드는 진행하지 못하고, 이미 진행된 교구 시노드(2015-2019년)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작 단계에서는 짧은 일정 안에서 시노달리타스의 의미를 이해하고 교육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실천 계획을 세우고 일선에서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sup>13)</sup> 그렇지만 여러 공동체에서 만남과 경청, 식별이 이루어지면서 서로의 신앙 체험이 공유되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심을 점점 강하게 의식하게 되었다는 고백으로 이어졌다. 특히 여느 때보다 경청과 식별, 기도와 침묵이 강조되면서, 회의나 토론 또는 의견 종합이 아닌 영적 과정으로 체험되었다. 무엇보다 큰 결실은 시노드 교회를 다수의 하느님 백성이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sup>14)</sup>

---

13) 무관심, 비협조적 태도, 의무감, 주저, 귀찮음 등이 시작 단계에서의 지배적인 정서였다. 특히 이러한 회의적 시선은 과거에 교구 시노드를 경험했던 교구들에서 두드러졌는데, 시노드를 해도 변화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자조감이 크게 작용했다. 또한 이번 시노드는 애초의 취지와 달리 가능한 많은 교구민들이 경청과 대화에 참여하기에는 기간이 짧아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에서 배부해 준 시노드 예비 문서와 편람의 내용은 아시아의 문화권에 있는 한국 교회 신자들이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개념과 내용이 많아 이를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14) “시노드에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놀라웠다. 과거로 가득하지만, 미래가 없는 박물관 교회가 되지 않게 지켜주소서, 시노드가 주교님의 전유물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대구대교구 종합의견서). 시노드 여정에 동참한 한 어르신 신자의 소감: “아! 알겠습니다! 뭐가 했던 시노달리타스가 이런 것이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모여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길을 걸으면 사도회든, 구역반이든, 연령회든, 교리교사회든 다 잘 될 것이고 하느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워질 수 있겠군요!”(원주교구 종합의견서)

## 함께 걸어가는 이들은 누구인가?

한국 교회는 교구별 종합과 한국 주교회의 단계의 시노드 모임을 통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가 함께 걸어가야 할 “여정의 동반자”가 누구이며, 그들을 향한 교회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가졌다. 우선 하느님 백성인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가 서로에게 온전한 동반자가 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이것이 교회 내 여러 어려움에 근본적 요인이 되고 있음을 성찰하게 되었다. 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의 첫 번째 지점이다.

하느님 백성의 각 지체들이 자신들의 신원에 대한 깊은 성찰과 회심 그리고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하느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느님을 중심으로 서로 관계를 맺으며 함께 걸어간다. 그들은 경청과 대화 그리고 협력을 통해 친교를 맺으며 공동체적 사명을 함께 수행해 간다.<sup>15)</sup> 여기에 특별히 경청이 요구되는 그룹이 바로 성직자와 수도자이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 안에서 성직자의 위상은 남달랐다. 특유의 권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직자 편에서 평신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도록 요청된다.<sup>16)</sup> 이 경청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성직자 중심의 수직적 의사소통 구조<sup>17)</sup>에 변화가 요청된다. 성직자 중심의

---

15) 안동교구 종합의견서

16) 군중교구 종합의견서

17) 본당에서 신자들 대부분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크고 대화를 피한다. 본당 주임사제 앞에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뒤에서

수직적 의사소통 구조는 평신도, 수도자들이 말하기를 어렵게 하기에 수평적 의사소통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 ‘위로받고 배려해 주는 교회’, ‘설 수 있는 교회’<sup>18)</sup>가 될 수 있도록 평신도와 수도자의 발언들에 귀 기울여야 하고, 이 소중한 발언들이 교구와 본당의 결정 구조 속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노달리타스의 구현을 위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서로의 고유한 역할과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들의 자리를 마련하고 상호 경청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각자의 고유한 역할과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동일한 존엄성을 지닌 동반자적 존재로서 서로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노드 정신이 실현되는 친교적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sup>19)</sup>

교회헌장(Lumen Gentium)은 평신도들의 보편 사제직, 예언 자식에 대한 중요한 교리를 되찾아 주어 평신도가 교회에서 새롭게 가치 있게 살게 하였다.

“세례 받은 사람들은 새로 남과 성령의 도유를 통하여 신령한 집과 거룩한 사제직으로 축성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 신령한 제사를 바치며 그들을 어두운 데에서 당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불러 주신 분의 능력을

---

자기들끼리 목소리를 내고 여론을 형성할 때가 많다. 사실 본당 안에서 신자들이 어떤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뿐더러, 그저 시키는 일을 할 뿐 마음의 소리를 밖으로 잘 내지 않는다(전주교구 종합 의견서). 그 이유로 사목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18) 대구대교구 종합의견서

19) 춘천교구 종합의견서

선포한다(1베드 2,4-10 참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느님을 함께 찬양하며(사도 2,42-47 참조),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고(로마 12,1 참조) 세상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언하며, ....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과 직무 또는 교계 사제직은, 정도만이 아니라 본질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각기 특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다..... 신자들은 자신의 왕다운 사제직의 힘으로 성찬의 봉헌에 참여하며, 여러 가지 성사를 받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한 삶을 증언하고 극기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제직을 수행한다”(10항).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은 또한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도 참여한다.... 성령께서는 성사와 교역을 통하여 하느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여러 가지 덕행으로 꾸며 주실 뿐 아니라 .....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은 공동선을 위한 것이라는(1코린 12,7 참조) 말씀에 따라, 성령께서는 그러한 은총으로 교회의 쇄신과 더욱 폭넓은 교회 건설을 위하여 유익한 여러 가지 활동과 직무를 받아들이는 데에 알맞도록 신자들을 준비시킨다”(12항).

이로써 많은 평신도들은 여기서 자신의 소명을 새로운 방식으로 성찰하도록 격려받았다. 하느님 자녀의 존엄성을 부여 받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할 책임을 맡은 평신도는 자신의 임무와 역할과 적절한 행동의 맥락에서 교회 통치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따라서 이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복음적 겸손의 자세로 먼저 다가가 하느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적 자세를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이다. 또한 교회의 뜻을 결정할 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경향을 지양하고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데,<sup>20)</sup>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본당에 주임 신부가 부임하면, 가장 먼저 설문 조사를 통해 전체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목의 방향을 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sup>21)</sup>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성직자의 탓으로만 돌리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 새로운 이들을 경계하고 이방인으로 만드는 배타적인 분위기의 공동체 모습이나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세속적 친교 방식들은 우리가 함께 이루고자 하는 이 땅에서의 하느님 나라를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버려야 할 문화’이다. 여전히 존재하는 평신도들 개개인의 독선적 태도로 입게 되는 아픔과 상처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야 하며, 교회 안에서 충분한 발언과 경청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고, 관료적이고 획일화된 분위기 안에서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그 기회가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sup>22)</sup>

지금까지 교회 내 의사 결정은 사제 중심적 내지 독단적으로 내려졌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본당에서 신자

---

20) 원주교구 종합의견서

21) 전주교구 종합의견서

22) 춘천교구 종합의견서

들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만 반영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공동체 전체보다 몇몇 주요 임원들과 본당 신부가 상의해서 주요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sup>23)</sup> 이렇게 충분한 참여와 토의 과정 없이 결정된 사안은 냉소와 비판,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진단하였다.<sup>24)</sup>

그렇지만 결정을 내리는 성직자들 역시 자신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책임 의식과 결정 구조 속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음이 확인되었다.<sup>25)</sup> 평신도들 편에서는 대화를 원하지만, 막상 대화에 나서는 것에는 수동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수도자들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때 무력감을 느끼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동 협의의 한 주체로서 역할이 존중받기를 희망하였다.<sup>26)</sup>

이상의 성찰을 통한 쇄신의 방향은 우리의 실천을 요청하며 이를 위해 시스템적인 측면을 제안해 본다.

한국 교회가 시노달리타스를 구현하는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느님 백성과 더 많이 더 깊이 소통해야 함이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하느님 백성의 ‘신앙 감각’을 수용하도록 ‘시노드적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자문’의 가치를 재인식하고,<sup>27)</sup> 교회법<sup>28)</sup>과 각종 교회 문헌<sup>29)</sup>이 시노드 기구로

---

23) 청주교구 종합의견서

24) 부산교구 종합의견서

25) 인천교구 종합의견서

26) 수원교구 종합의견서

27) 한국 교회 교구 책임자 모임(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단계의 시노드 모임)

28) 교회법전 511-514항

29)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27항,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7항,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30

명시하고 있는 사목평의회가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를 듣는 실질적인 제도적 창구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각 교구와 본당에서 다양한 평신도와 수도자의 목소리에 경청하여 실제적 사목평의회 역할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주교회의 차원에서도 사목평의회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적절한 통로가 마련됨으로써 전체 한국 교회의 시노 달리타스를 실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주변부(변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 실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의 공적 역할과 의미에 대한 요청과 반성이 거세다. 이는 교회가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뜻인 “이웃 사랑”이 구현되고 있지 못하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웃 사랑”의 우선적 측면에서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대표해 지칭할 수 있는 주변부(변방)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실천은 교회의 근본 사명임을 자각해야 한다.<sup>30)</sup> 주변부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그리스도인 개인과 본당, 그리고

---

항,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26항 등이다.

- 30)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참으로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든 신자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가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인 그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를 향한 여정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여야 할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는 인류와 인류 역사에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체험한다”(사목헌장 1항).

교구 공동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다를 것이다. 우리에게 주변부는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 특히 여러 어려움과 고통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 가난한 이들, 이주민, 북한 이탈 주민, 독거 노인,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는 노인, 미혼모, 국가 폭력에 희생된 이들, 청소년과 어린이, 소외된 여성들, 난민,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교우들, 타교파·타종교인들,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모든 세속적 흐름에 대항하는 의로운 이들 등일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 사랑의 실천에 매진하며, 늘 깨어서 이들에게 다가가고 함께하는 여정을 동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 교회가 하느님의 정의와 공동선 증진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토대로 사회와 대화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통해 얻는 사랑의 체험들은 교회의 삶을 쇄신하고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오랜 기간 분단과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통받아온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는 지치지 않는 평화의 증언자로서 남북 화해와 통일, 그리고 북한 교회를 향한 지원과 협력의 길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가 공동의 집임을 깊이 깨닫고 생태적 회심에 따라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미진했던 생태계와 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과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창조주를 아버지로 하는 ‘모든 형제들’인 생태계의 생명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고통을 경청하여 교회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sup>31)</sup> 이 주

변부로 대변되는 이웃에 대한 우선적 사랑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두 번째인 것이다.

먼저 주변부로 대변되는 이웃 중에 우리는 청소년, 청년들에 대해 깊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함께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교구에서 이에 대한 시급함과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교회는 젊은이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며, 함께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젊은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노력들이 부족했다.<sup>32)</sup>

세속화된 사회 안에서 오늘날 젊은이들의 생활 환경 자체가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있지만,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기 전에, 젊은이들의 삶에 무관심하고 젊은이들의 부족한 신앙 교육을 방관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소홀했던 교회가 이미 그들을 떠난 것이었다.<sup>33)</sup>

또한 청년들의 제안에 경청하지 못했고, 교회의 사목 결정에 있어 사목평의회나 사목 계획 수립 등에 “적어도 참관인”으로라도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은 깊게 새겨야 할 것이다. 청년들이 담대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이 교회에 유효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창구가 필요하다.<sup>34)</sup>

더 나아가 하느님을 향한 여정의 동반자로서 누구도 소외

---

31) 전국여성연합회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생태와 생명에 관한 교구와 본당 차원에서의 위원회 및 분과가 조직되어 더욱 실천적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32) 의정부교구 종합의견서

33) 춘천교구 종합의견서

34) 서울대교구 종합의견서

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가 돌볼 것을 제안했다.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 독거노인, 한 부모 가정과 장애인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과 부조리로 인해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이들을 위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참여와 연대를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sup>35)</sup> 장애인들은 장애인을 위한 미사와 교회 공동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sup>36)</sup>

2021년 한국의 모든 교구가 65세 이상 신자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교구로 진입하였다.<sup>37)</sup> 독거 노인이 많고 노인 빈곤율도 높다. 노인들이 교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설 자리를 찾아주고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또한 위기 가정과 이혼의 증가로 신앙생활에 제한을 받는 신자들과 조손 가정이 많다. 이들을 위한 상담 기구와 영신적 조력과 제도(교회법) 개선이 필요하다.<sup>38)</sup> 특별히 교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특히 냉담 교우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sup>39)</sup> 또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의사 결정에서는 소외되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여성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

35) 서울대교구, 종합보고서

36) 서울대교구 종합의견서

37)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1 분석 보고서」, 2022.4.22., 16면 참조.

38) 원주교구 종합의견서

39) 대구대교구 종합의견서

증진하는 교육과 연구 그리고 활동 지원을 통해 여성들의 활동이 편해지지 않도록 교회의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리고 가정 폭력, 성 착취, 성매매, 낙태 등으로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과 청소년뿐 아니라 전 신자를 대상으로 한 성·사랑·생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sup>40)</sup>

또 이주민을 위한 미사 참례 기회를 늘리고 교통편 제공과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내놓았다.<sup>41)</sup> 또한 가난한 이를 위한 자선의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고 교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가난한 이의 교회’가 되려는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다고 하였다.<sup>42)</sup> 나아가 교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는 각 분야의 단체와 함께 활동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되었다.<sup>43)</sup>

특히 70여 년간 분단 상황에서 살고 있는 한국 교회는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북한 교회를 동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sup>44)</sup> 또한 생태계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울부짖는 생태계 역시 동반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교회는 이상의 한국 교회 시노드 종합에서 표현되었던 내용들인 주변부에 대한 관심과 사랑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그들을 위한

---

40) 서울대교구 종합의견서

41) 원주교구 종합의견서

42) 제주교구 종합의견서

43) 안동교구 종합의견서

44) 한국 교회 교구 책임자 모임

투신과 배려 그리고 나눔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이상에서 한국 교회 시노드 종합의 내용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어가야 할 길을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었다.

첫째, 하느님 백성의 각 신원들(평신도,수도자,성직자) 각자가 세상 안에서 복음화되지 못했음과 하느님 백성인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가 서로에게 온전한 동반자가 되지 못함으로써 교회 내 여러 어려움에 근본적 요인이 되고 있음을 성찰하게 되었다. 이 성찰은 교회의 친교와 시노달리타스를 향한 회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수직적이며 닫힌 구조’로 체험되고 인식되고 있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부재, 사제 중심적 또는 사제의 독단적 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교회 운영, 그리고 설사 신자들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극히 소수의 의견만이 고려된다는 것 등이 언급되었다.<sup>45)</sup> 평신도들은 교회의 관리와 운영이 모두 성직자에게 편향되어 있는 모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sup>46)</sup> 권위주의적 태도는 사제들뿐 아니라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사목 위원이나 단체 임원들이 텃세를 부리거나 권위주의적이고

---

45) 서울대교구 종합의견서

46) 인천교구 종합의견서

고압적인 자세,<sup>47)</sup> 사도직 단체 활동의 봉사 직무에 대한 차별화의 모습은,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 구별과 분리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관찰된다.<sup>48)</sup>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와 조직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이어졌다. 곧 이미 교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제평의회, 교구 사목평의회, 본당 사목평의회, 재무평의회 등이 실질화 내실화하고, 더욱 활발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미 교구와 본당 단위에 ‘사목평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몇몇 사람’에 해당하는 평의회의 구성원이 ‘모든 사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일반 평신도들은 분리되고 소외되는 느낌이 든다는 의견이 많았다.<sup>49)</sup> 이러한 구조와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먼저, 사목평의회가 하느님 백성에 대한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각 기구의 위원을 임명·선출할 때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 부유함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세속적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적 기준에 적합한 봉사자들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교회가 세상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신앙심을 지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

47) 서울대교구 종합의견서

48) 인천교구 종합의견서

49) 춘천교구 종합의견서

한다고 제안했다.<sup>50)</sup> 또한 누구도 소외되거나 일부 사람들이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인 구성원들의 변화와 순환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운영도 강조되었다.<sup>51)</sup>

더불어 사목평의회의 핵심 기능은 ‘자문과 점검’이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의 현실은 ‘집행과 실행’이라는 측면에만 맞춰 있어 존재 목적이 ‘자문 기구’, ‘경청 기구’로 재인식하여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결정을 만들어가는 것’과 ‘결정을 내리는 것’의 조화가 있어야 하고, 평의회는 ‘만들어가는 것(making)’에 참여하고 그것을 목자에게 자문하고, 목자는 그 중 ‘결정을 내릴(taking)’ 수 있도록 하는 본질적 쇄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52)</sup>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어떤 특정한 단계에서만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단계에 걸쳐, 곧 본당의 여러 단계를 비롯하여 각 지구와 교구, 더 나아가 주교회의와 보편 교회에 이르기까지 충만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sup>53)</sup>

이런 과정 아래서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는 상호 경청과 동반의 정신 아래서 양성되어야 하며, 이 동반과 양성에서 성찬례의 중요성은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 시노달리타스의 원천과 절정이 전례 거행에서 드러나며, 교회의 시노달리타스는 성체성사에 의해 형성되고 양육된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기

---

50) 서울대교구 종합의견서

51) 전주교구 종합의견서

52) 한국 교회 교구 책임자 모임

53) 춘천교구 종합의견서

때문이다.<sup>54)</sup>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의 전례 현실은 신자들의 신앙 감각이 충분히 표현되지 못하고, 보편 사제직으로서의 직무 실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하느님 백성의 충만하고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전례 참여를 위한<sup>55)</sup> 시노달리타스적 전례 쇄신<sup>56)</sup> 역시 필요하다.

둘째, 주변부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사랑 실천이 이루어져야 함을 살펴보았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신자들은 교회 활동보다 사회생활을 우선시하며, 가족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교회 활동에 함께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또한 개인주의로 자기 편리와 이익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교회의 활동에 동참하더라도 기도와 신앙에 토대를 두지 않고 활동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 활동이 복음 선포로 이어지기보다 인간적 친목이나

---

54)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47항.

55) 전례 현장 10항 참조.

56) 전례 안에서 ‘보편 사제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시노달리타스 양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복음의 기쁨」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전례를 평신도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결국 본당의 사목평의회 등에서 전례에 대해 사제와 신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자문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한국 교회 교구 책임자 모임).

주례 사제의 성의 없는 미사 거행과 준비되지 않은 강론은 신자들의 온전한 미사 참여를 방해한다고 지적되었다. 또 아직까지 남성 위주로 전례 봉사자를 임명하는 관습이 남아있다. 본당이 신앙과 전례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지만, 현실은 인간적 친목을 앞세우고 전례를 부차적으로 치부할 때가 적지 않다(부산교구 종합의견서).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특별한 지향으로 기도와 전례의 시간을 갖고 회의에 임했다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것은 중요한 결정들에서 기도와 전례가 형식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전주교구 종합의견서).

자기만족에 그칠 때가 많다.<sup>57)</sup> 물질 중심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종교 생활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기에 사랑의 실천과 나눔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58)</sup> 그래서 신자들은 교회의 사명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려 노력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인내를 가지고 감싸 안아주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구호 분야나 사회복지 사업 등에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 또한 교구나 수도원 단체 차원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는 모습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sup>59)</sup> 그렇지만 낙태, 자살과 안락사, 사형제도 반대, 환경 보호, 세계 평화의 증진 등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응답하지 못했음을 성찰했다. 또한 이웃사랑의 실천과 사회와의 연대 활동에 무관심했으며, 지역 사회에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였음도 성찰했다. 그리하여 자신과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로 나아가는 데 동반자로서 함께해야 하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가난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고백했다.<sup>60)</sup> 이 바라봄을 통해 교회는 주변부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을 향해 손을 뻗어야 할 것이며, 그들을 안고 그들을 보살피며 그들과 함께해야 할 것이다.

---

57) 부산교구 종합의견서

58) 전주교구 종합의견서

59) 원주교구 종합의견서

60) 서울대교구 종합의견서

이상의 방향과 실천이 한국 교회 시노드 종합의 내용이며, 이를 구현하는 것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걷는 이 시노달리타스의 길은 우리에게 활력과 기쁨을 선사하며, 세상 안에서의 복음화와 친교, 참여, 선교의 시노드 교회를 구현해 갈 것이다.

Ⅲ

강연 - 주제강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 탈세속주의(post-secularism) 시대의 신앙전수 -

청소년사목국장 / 윤정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사랑이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 자신과 또 이웃과 나누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랑은 언제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보이는 것 넘어 하느님을 희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믿음과 희망을 통해 하느님께로부터 불림을 받았고, 교회의 삶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통해 교회에 잘 모이지 못하게 되자, 신앙생활을 몹시 바라는 동시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편하다는 것 또한 느꼈습니다. 성사와 말씀 중심의 교회생활이 없이도 나름의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기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도 회복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인 중·고등부 학생들과 젊은 이들은 교회에서 흔적을 감추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코로나의 여파라고 단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세태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구성원들은 또한 시대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받기에, 그 시대의 정신이 신앙에 그대로 침투되기도 하고 또 그 정신에 맞서 신앙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코로나의 여파보다 더 크고 강력한 시대의 흐름이 이미 세상 안에 젖어있습니다. 곧, 우리는 이미 세속화를 넘어 탈세속화(post-secularism) 시대라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이미 젖어있는 세속화, 탈세속화를 이해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의 자녀들의 신앙을 이해하는 한 잣대가 될 것이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어떻게 신앙전수를 할 것인가’라는 물음은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될 것입니다.

## 1. 세속화란?

18세기 이전에는 교회가 국가보다 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보호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도록 보장하는 기관이었다면,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모든 이를 구원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는 국가보다 ‘완전한 사회’(societas perfecta) 혹은 교회는 ‘국가와는 다른 사회’(societas inaequalis)라고 불렸습니다. 곧, 교회가 국가보다 권위가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국가의 권위가 교회를 압도하고, 교회의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세속화’라고 정의합니다<sup>61)</sup>.

이러한 세속화의 현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18세기 이후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세속화 현상으로 교회의 권위를 벗어난 국가의 자율성, 더 나아가 세상의 자율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교회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자율성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치와 체계를 부정하며, 보다 시민사회의 공통된 이해를 추구하는 제도(민주주의)로 정착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가 강조한 윤리와 도덕은 시민사회의 공통된 합의를 추구하는 상식(common sense)과 사회법의 준수로 변모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세속화가 한참 진행되던 시기에 개신교 학자인 루돌프 폰 하르낙(Rudolf von Harnack)은 믿음이란 더 이상 ‘사회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마음의 문제’ 주장하면서 교회는 ‘마음의 결사’(societas in cordibus)라고 정의합니다. 데카르트로부터 발아된 주관주의가 활짝 피어나게 됩니다.

이렇듯 세속화 현상으로 자율성, 독립, 시민사회 형성 그리고 기성 종교 제도를 꺼려하는 현상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

61) Cfr. GRAZIANO LINGUA, *Esiti della secolarizzazione*, Edizione ETS, Pisa 2013, 21: “이미 16세기 중반에 세속화는 교회법 안에서 드러나는데, 수도사제에서 재속사제로의 신분 변화를 의미한다.”

않아 교회와 긴장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반면, 이러한 세속화 현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곧, 유명한 개신교 학자인 디트리히 본 회퍼(Dietrich Bonhoeffer)는 1920년대에 세속화의 현상을 받아들이면서 ‘성숙한 그리스도교’에 대해 이렇게 적습니다. “세상을 알아가는 용기를 지니고 또 무능력한 이성과 인간적 상처에 대해 위로를 건네고 또 그 어려움을 덮으려는 ‘미봉책 하느님’을 지양하자.”<sup>62)</sup> 이는 1625년에 그로씨우스(Hugo Grotius)가 말한 유명한 명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하느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도록...”(*etsi Deus non daretur*)<sup>63)</sup>

하지만 역사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을 겪게 되는데, 강대해진 국가 권력에 대한 성찰보다 인간의 고통이나 비참 앞에서 신은 어디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의 부재를 설파하며 신의 죽음이 선언되기에 이릅니다.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적 번영 안에서 국가 힘의 논리에 좌우되지 않는 개인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1960년도를 전후해 자동차와 텔레비전 그리고 냉장고를 전 세계를 강타한 아메리칸 스타일은 세속화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그리하여 삶의 공간은 더 이상 교회 중심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 이동되었고, 개인적 삶의 공간에서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러한 세속화가 드러내는 특징인 자율성, 독립성, 시민성, 내재성, 개인성을 바탕으로 두고 피터

---

62) IBID., 25.

63) LUIGI BERZANO, *Quarta secolarizzazione*, Mimesis, Milano 2017, 60.

버거(Peter Berger)는 1968년에 이렇게 예측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어떠한 교회나 신앙 공동체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세속화된 문화로부터 지배된 세상에 저항하는 작은 분파의 집합이나 저항이 될 것이다.”<sup>64)</sup>

## 2. 탈세속화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과 세속화는 ‘기존의 권위와 체제의 부정’이라는 비슷한 궤도를 달립니다. ‘68혁명’이라 불리는 1968년의 젊은이들의 운동은 기존의 가치와 체계를 부정하게 됩니다. 이 흐름 안에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상대주의가 부각되고, 또 세속화는 모든 사람에게 내면화되어 개인주의, 상대주의, 자유주의가 큰 가치가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종교 참여자 수가 급감하였습니다. 종교는 사라질 것이라 예측한 피터 버거의 말이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사라질 것이라는 피터 버거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1980년 이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선교 사도로서의 모습, 동구권의 몰락, 미국 개신교의 부흥은 ‘종교의 귀환’, ‘하느님의 재탄생’을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학자들은 전통적인 종교의 재건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종교의 모습을 취한다고 예견합니다.

---

64) PETER BERGER, *A bleak outlook in seen for religion*, in “New York times, 25 feb. 1968.

이를 탈세속주의(post-secularism)라고 하는데, 세속화의 정신인 자율성, 독립성, 시민성, 내재성, 개인성을 받아들여, 이러한 정신이 구체적인 생활양식에 다양하게 적용되는 다원주의적 형태를 말합니다.

“세속화의 여파는 신앙의 체험을 지닌 종교의 역사나 지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된 세상의 다양성에 결합되는 것으로 종교가 변화된다.”<sup>65)</sup>

그 중 ‘종교에 속하지 않더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believing non belonging)는 사고는 ‘탈세속주의’를 압축하는 말입니다. 곧, 기성 종교의 제도에 들어가지 않고 심지어 신앙을 지니지 않더라도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세속주의 안에서는 개인화, 주관화, 상대화를 바탕으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종교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영성(spirituality)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종교는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모습, 곧 영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리와 내적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 없는 영성은 많은 이들이 이를 따르고 또 공적 영역에서 대중성을 얻게 된다. 나름의 방법으로 ‘하느님 없는 영성’을 살아가는 이들은 ‘종교적’인 흐름이 된다. 흔히 말하듯, ‘어느

---

65) LUIGI BERZANO, *Quarta secolarizzazione*, op.cit., 76.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다’(nones)는 이 용어는 서구 세계의 종교성에 관한 조사에서 종종 나타난다.”<sup>66)</sup>

이렇듯 종교 없는 영성은 세상에도 적용되는데, 국가나 정치의 영역은 자신의 이기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다 종교적인 색채를 지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때 교회가 큰 활동을 했던 교육이나 복지의 영역은 이제 정부의 일이 되어 가고, 이웃을 배려하자는 공익광고는 교회의 메시지와 비견될 만큼 감동적인 캠페인이 되어 가며, 스포츠나 지자체의 축제는 거기에 참여한 이들을 하나로 통합할 만큼 친교의 영성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회는 보다 세속적이 될 것이지만, 종합적으로 세상은 보다 종교적이 되어 간다.”<sup>67)</sup>라는 말은 틀린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성은 그리스도교만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심지어는 신을 믿지 않는 이도 영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영성은 분파와 이단현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 영성의 혼종(syncretism)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깨달음’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면 영성을 지닌 모든 이는 종교적 인간(*homo religious*) 혹은 하느님을 향한 정향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 신학자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Hans

---

66) GIOVANNI CUCCI, *Religione e secolarizzazione*, Cittadella Editrice, Assisi 2019, 116.

67) GRAZIANO LINGUA, *Esiti della secolarizzazione*, op. cit., 41.

Urs von Balthasar)가 제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은 남게 됩니다.<sup>68)</sup> 곧, 신앙생활의 위기라는 말입니다. 이미 1912년에 샤를 페기(Charles Peguy)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이후, 예수 없는 세상.”<sup>69)</sup>

### 3. 시대의 자녀

코로나로 인해 생활양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지 않고도 SNS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혼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화와 사유화(privatism)는 커져 갑니다. 그리고 통념에 개의치 않고 혼자 결정하고 살아가도,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해”하고 살아가더라도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존중해야만 하는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여기에 결합된 ‘마음의 평화’의 추구는 기성종교에 받을 덜 담그거나 혹은 아예 속하지 않고도 실현 가능하고, 영성을 지니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수많은 영성의 최종 목표는 결국 자신의 안위와 직결됩니다.

“포기, 세상에 대한 금욕 그리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전통적인 종교적 영성과는 다르게, 새로운 양식의

---

68) Cfr. H. U. von BALTHASAR, *Cordula ovverosia il caso serio*, in id., *Gesù e il cristiano*, Jaca Book, Milano 1998.

69) LUCIO BRUNELLI, *Le Chiese vuote e la fantasia di Dio*, in *L'osservatore Romano*, 2021. 4. 10

‘가벼운 깨달음’(saggezza light)은 지금 여기에서 이미 물질적 성공을 보장하고 또 내적 평화, 평온함, 자신에 대한 신뢰, 편안함 그리고 휴식을 보장한다.”<sup>70)</sup>

비록 우리는 직접적으로 전형적인 세속화나 탈세속화를 경험한 적이 없지만, 가장 빠르게 탈세속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생활에 참여하는 이들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지만, ‘가벼운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들은 많아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가벼운 깨달음’이 하느님 체험이라고 나눌 것이지만, 하느님을 따름에 있어 결단적 선택은 더디게 될 것입니다. 영성은 추구하려 하지만, 교회생활은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하지 않고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보다 커져 갈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이미 예견된 시대적 흐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현상은 이미 존재하는 열매들의 낙과에 불과”<sup>71)</sup>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권위와 가치 체계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가벼운 깨달음’이 아닌 기계적인 기존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며,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다원화된 사고에서 하나의 진리를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부담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

70) LUIGI BERZANO, *Quarta secolarizzazione*, op.cit., 93.

71) AMEDEO PIVA, *Vuote le piazza vuote le chiese*, in *L'osservatore Romano* 2021. 4. 24.

떠나가는데,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교회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코로나의 여파가 회복되고 있는 지금, 본당에서 활동하는 50대 이상의 신자들은 우리나라 사회가 지닌 결속력과 단합력을 중시하는 단체활동에 매우 익숙한 분들입니다. 이와 달리, 본당에서 젊은이들을 잘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이 세대가 이미 탈세속주의의 개인화와 사유화 그리고 다원주의에 익숙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에게는 결속력과 단합력이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체 활동이 그리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눈에는 이러한 단체활동 안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러한 매력 없음을 매력으로 바꾸려고 술도 마시고, 순례도 가고, 놀이동산에도 가지만, 결국 그들 신앙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지는 못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는 것을 피곤해하는 현대인의 성향 그리고 환대는 커녕 오히려 주눅이 들게 하는 사무적인 교회환경도 그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젊은이들은 말하지 않을 것을 것입니다.

세속화의 과정에서는 교회에 적대적인 세상을 상대로 교회가 대응하는 방향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탈세속화 과정에서는 교회에 적대적이지도 않은, 그렇다고 교회적이지도 않은 수많은 방향들이 교회와 섞여서, 이 현상에 대해 교회가 대응

하기는 보다 힘들고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적 세속성’<sup>72)</sup>과 ‘영적 갈망’이 동시에 표출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매우 풍요로우면서도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기 보다 강렬한 자유를 누리면서도 ‘선택 장애’를 앓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편안함을 누리면서도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 어딘가에서는 하느님을 찾으며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있어 편하다고 하면서도 서로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 내 탈세속화의 현상을 식별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 4. 신앙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

교황 프란치스코가 2013년에 교황으로 선출이 되고 나서, 그 다음해인 2014년에, 교황권고 「복음의 기쁨」을 반포하였습니다. 이 권고는 복음을 중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살아가자고 초대하는 “신앙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sup>73)</sup>의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착화되었고 제도화되었으며,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수많은 교회의 현실에서 이러한 권고는 당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sup>74)</sup>

---

72)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93항.  
“영적 세속성은 신앙심의 외양 뒤에, 심지어 교회에 대한 사랑의 겉모습 뒤에 숨어서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적인 영광과 개인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73) 위의 책, 서문 III장의 제목.

74) Cfr. ANTONIO RUCCIA, *La parrocchia secondo l'Evangelii gaudium*.

이 문헌은 복음선포의 주체가 성직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 해당된다고 강조합니다. 곧, 본당에서 사목자나 수도자만이 복음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평신도와 수도자 그리고 성직자 모두가 복음을 증언하고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선포가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근본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선교활동이 모든 교회 활동의 패러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sup>75)</sup>

교황 프란치스코의 사목적 계획을 담고 있는 ‘복음화 하는 교회’라는 선교적 변화에서 하느님 백성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평신도의 역할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즈움에 진행되고 있는 ‘시노달리타스’ 시노드에는 상대적으로 평신도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민주주의나 의회주의가 아닙니다. 곧, 시노달리타스는 평신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민주적인 시스템을 차용하기 보다는,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 주어진 복음선포라는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이해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식별하는 것은 공통된 생각을 지니게 하는 ‘친교’의 과정이고, 이렇게 공통된 생각을 형성하면서 복음선포의 주체인 하느님 백성의 더 많은 ‘참여’의 단계를 거쳐, 시노달리타스의 과정을 함께 하는 하느님 백성 전체는 복음선포라는 교회의 근본

---

*Integrare, accompagnare, discernere*, EMP, Padova 2018.

75)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17항.

‘사명’을 실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노달리타스’ 시노드의 로고는 ‘친교-참여-사명’으로 시노드의 정신을 요약합니다. 여기서 교회의 근본 사명인 복음화에 평신도들이 앞장서 가라는 기대가 무르익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교회에 앞서가시는 하느님을 뒤따르며, “선교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첫걸음을 내딛고, 뛰어 들고, 함께 가며, 열매 맺고, 기뻐”하는 “출발하는 교회”(Iglesia primerear)<sup>76)</sup>가 되자고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이는 탈세속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가 지닌 개인화, 사유화, 상대화, 영성화의 유혹에서 벗어나 새롭게 복음화 된 교회의 모습을 살아가자고 초대하는 예언적인 초대입니다.

## 5. 신앙 전수의 방법

‘복음화 하는 교회’에 대한 한국교회의 수용은 교회의 확장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신자나 본당의 수치적인 증가 그리고 이러한 증가를 위한 단체 중심의 사목적 모델이 확립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수치적인 감소는 이 시기가 끝나면 당연히 회복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팬데믹이 빨리 끝나는 것이 그 해결책인 듯하였으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전과도 같은 규모로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왜냐 하면 코로나의 여파는 사실 탈세속주의 시대의 흐름이 드러내는 실질적인 문제에는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

76) 위의 책, 24항.

교회의 외적인 형태와 구조를 유지하려는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한 쇄신된 사목적 모델이 필요합니다. 보편교회의 차원에서 쇄신된 사목적 모델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은 젊은이 사목입니다. 2016-2018년에 젊은이를 주제로 한 시노드와 그 후속문헌인 교황 프란치스코의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2019)는 젊은이들을 위한 신앙 전수의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탈세속화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해야만 하는가는 알지라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는 모르고 있다.”<sup>77)</sup> 그래서 신앙 전수의 방법을 ‘엠마오의 제자들’(루카 24,13-35)에서 찾고 있는데, ‘경청-동반-증언’을 강조합니다.

먼저 ‘경청’입니다. 즈움에 시노달리타스를 주제로 한 모임에서도 ‘경청’의 중요성은 첫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담한 채 “침통한 표정”(루카 24,17)을 한 제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신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기 이전에 먼저 대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언제나 정중하고 친절한 이 선포에서 첫 단계는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이때에 상대방은 말을 하면서

---

77) A. BOZZOLO, *L'evangelizzazione: le dimensioni costitutive della missione ecclesiale*, a cura di R. SALA, *Evangelizzazione e educazione dei giovani*, LAS, Roma 2017, 121.

그의 기쁨과 희망과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마음속에 담긴 여러 가지를 나눕니다. 이러한 대화를 나눈 다음에야 비로소 성경 구절을 읽거나 이야기하듯이 하느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sup>78)</sup>

그 다음은 ‘동반’입니다. 즈움에 시노달리타스를 주제로 한 모임에서도 ‘동반’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함께하는 여정’(synodalitas)이기에 젊은이들의 생활과 이야기에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체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목 방향에서 한 사람에게 다가가 동반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느끼는 기쁨과 희망 그리고 좌절과 어려움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반하셨듯이, 한 젊은이의 신앙의 여정에 교회의 모든 이가 동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공동체의 동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는 젊은이들의 동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젊은이들을 환영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용기를 북돋우고 독려할 책임감을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젊은이들을 이해와 존중과 애정으로 대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판단하거나 그들 나이에 맞지 않는 완벽함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sup>79)</sup>

---

78)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128항.

79) 교황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242항.

마지막으로 ‘증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담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성경을 통해 선포(kerygma)하신 것처럼, 오늘날의 신앙 전수에서는 케리그마의 체계적인 교육보다는 케리그마를 살아간 ‘증언’이 보다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당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날마다 여러분 곁에 사시면서 여러분을 깨우치시고 힘을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sup>80)</sup>

특히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에게 믿음을 살아간 증언을 하는 것이 참다운 교리교육이라고 여러 번 교황님은 강조합니다. 이러한 ‘경청-동반-증언’은 2020년 발표된 「교리 교육 지침」(Directory for Catechesis)의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 6. 신앙 전수의 주체인 부모

이제 복음선포의 주체를 하느님 백성에서 평신도, 그중에서도 부모로 포커스를 맞춥니다. 사실, 부모에게는 신앙 전수의 큰 임무가 주어지는데, 특별히 탈세속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혼인과 가정은 사회에 대한 평신도의 의무가 시작되는 최초의 장소입니다.”<sup>81)</sup>

---

80)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164항.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연스레 가정<sup>82)</sup>을 이룬다는 것인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주를 이루지만 더 넓은 가족의 관계까지도 포함됩니다.<sup>83)</sup> 그래서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신앙 전수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신앙 전수를 할 수 있는 가정은 복음화의 자리임이 분명합니다. 여기로부터 복음화하고 또 복음화되는 ‘가정교회’의 특별함과 고유함이 펼쳐집니다.

“가정은 교회처럼 복음이 전달되는 곳이에요 거기서 복음이 빛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의식하고 있는 가정은 모든 가족이 복음 선교를 하는 것이고 동시에 복음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자녀들로부터 복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다른 많은 가정과 이웃에게 복음 선교자가 되는 것입니다.”<sup>84)</sup>

- 
- 8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평신도 그리스도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8 40항.
- 82)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2021, 75항. “가정은 사랑과 유대의 공동체를 이루고서 그 가족과 사회 발전에 근본이 되는 가치들과 사회적 덕행을 가르치며 전수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또한 자녀의 신앙 교육에서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역할을 맡고 있는 최초의 학교입니다.”
- 83) 일반적으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함께 자녀를 출산하여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지위이지만, 오늘날에는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한부모나 조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날에는 일반적인 가정 구성원이 아닌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혹은 무자녀 가정이나 일인가정 등 다양한 가정이 나타나고 있다.
- 84)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가정 공동체, 1981, 74항.

## 1) 부부 서로에 대한 복음선포

부부는 한 자녀의 아버지나 어머니 이전에 남편과 아내입니다. 사회혼이나 혼인성사의 은총으로 부부는 서로에 대한 축복과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sup>85)</sup> 부부는 혼인생활을 통하여 인간적 성숙을 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 성숙을 합니다.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배우자에 대한 희망과 사랑이 일상적이고 무던한 혼인 생활로 인해 멈춰질 수 없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위해 복음적 삶을 살아야 하고, 서로에게 복음선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복음선포 이전에 부부 서로에 대한 복음선포가 필요합니다.<sup>86)</sup>

## 2) 자녀에 대한 복음선포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은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신앙 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은 매우 특별하기에, 자녀에게 있어 부모는 “최초의 신앙선포자”<sup>87)</sup>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 교리 교육’<sup>88)</sup>은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일상적이고

---

85) 교황 베네딕도 16세의 권고, 주님의 말씀, 2011, 85항. “혼인의 위대한 신비로부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의 의미를 전수하고 증언하는 것은 참된 부성과 모성에 속합니다. 가정생활의 충실성과 단일성을 통하여 부부는 자녀들에게 처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이 됩니다.”

8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관한 교의헌장, 인류의 빛, 1964, 35항. “부부는 서로서로 또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할 고유한 소명을 지닌다.”

87)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 1965, 11항. “그리스도인 부부는 서로 자신들에게 또 자기 자녀들과 다른 가족들에게 은총의 협력자이며 신앙의 증인이 된다. 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최초의 신앙 선포자요 교육자가 된다.”

지속되는 삶 안에서 교리교육의 체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신앙이 증언됩니다. 곧, 어린 자녀에게 하느님을 알게 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치고, 교회 생활을 가정이 함께함으로써 자연스레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됩니다. 또 가정의 대소사에 있어서 그 일들이 신앙의 빛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증언됩니다.

‘가정 교리교육’을 통한 부모의 신앙 선포자의 역할을 두고 교회의 참된 봉사라고 말합니다.<sup>89)</sup> 이러한 교회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참으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전제”<sup>90)</sup>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정 교리교육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부모 자신의

- 
- 88) 성직자성, 교리교육 총지침, 1997, 266항. “가정에서 부모가 보여 주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증거는 자녀에 대한 애정과 존중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자녀들은 부모들이 보여주는, 하느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기쁘게 산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그러한 최초의 체험은 흔히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결정적인 자취를 남긴다. 가정에서 체험하는 어린 시절의 신앙에 대한 깨달음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다. 가정에 대소사가 닦칠 때에 “그 사건이 담고 있는 그리스도교적 또는 종교적 의미를 설명해 준다면” 가정 교리교육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또한 자녀들이 장차 신자 공동체에서 받게 될 체계적 교리교육에 대하여 부모가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거나 이해하도록 도와 줄 때 가정 교리교육은 더욱 견고해진다. 실제로, “가정 교리교육은 다른 모든 교리교육에 우선하고 모든 교리교육을 동반하며 풍요롭게 한다.”
- 89)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가정 공동체, 53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 부부와 부모가 복음을 위해서 바치는 봉사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교회적 봉사라는 점입니다.”; 성직자성, 교리교육 총지침, 267항: “부모는 혼인성사에서 “자녀들의 그리스도교 교육에 대한 은총과 봉사 직무”를 받으며, 그들에게 인간적 종교적 가치를 전하고 증언한다.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교육 활동은 “참다운 봉사 직무”이다.”
- 90) 교황 프란치스코, 사랑의 기쁨,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6, 287항.

미온적인 신앙 태도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마치 학원처럼 주일학교에 모든 신앙교육을 맡기는 것이라든지, 많은 경우 부모 한쪽만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부부간의, 부부가 함께하는 신앙 성숙 없이 부모 한쪽만 자녀에게 전해주는 신앙 전수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자녀 신앙교육에 있어 부모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 3) 가정들 간의 복음선포

가정은 원천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지닙니다. 곧, 조부모-부모-자녀로 이어지는 혈연의 관계나 가까운 이웃 가정과 연결되는 이웃의 관계를 지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핵가족화와 사회 경제적인 가정생활 양식의 변화는 가정을 섬으로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을 살아가는 가정은 다른 가정에도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화 된 가정은 다른 가정과 교류와 친분을 쌓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도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여 신앙의 표현과 성장을 촉진하면 가정이 복음화 되며, 스스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이에게, 심지어 가정 밖에 있는 이들에게도 신앙을 전하게 됩니다.”<sup>91)</sup>

그러하기에 가정들의 복음화의 관점에서 부모들의 모임은 매우 절실하고,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가정은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점진적인 가정들 간의 복음선포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가정들의 가정”인 “하느님의

---

91) 위의 책, 289항.

한 가정”이 됩니다.

부모는 가정 안에서 고유한 봉사의 활동으로 자녀에 대한 ‘가정 교리교육’을 담당하는 ‘최초의 교리교사’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모임은 주일학교에 대한 하부조직으로써 협조와 봉사를 하는 것이 첫째 임무가 아니라 각자의 가정과 가정들을 복음화 하는데 첫째 임무가 주어집니다. 이를 “참다운 봉사 직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신앙 전수의 가장 앞자리에, 가정은 교회를 형성하는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를 주일학교에 봉사하는 협조자로만 생각하는 ‘사목 편의주의’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를 하는 주일학교의 성패나 미래 교회의 모습은 가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가정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부모의 역할은 오늘날 젊은이 사목에서 핵심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부모에 대한 양성과 교육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 해왔습니다. ‘최초의 교리교사’인 부모의 봉사가 견고해질 때, 무너져가는 젊은이 사목이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또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쇄신될 수 있습니다.

## 7. 다가온 미래교회인 젊은이 사목

‘젊은이 사목은 젊은이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교회 전체의 것인가’

젊은이 사목에 관여하다 보면 이러한 물음이 떠오릅니다.

사실, 시대의 흐름을 가장 잘 타는 세대는 젊은이들이기에 이미 탈세속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탈 수 있게 용인해 주는 것은 이미 혹은 차츰 탈세속화되고 있는 부모를 포함한 기성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젊은이 사목에 관심을 기울이고 헌신해야 하는 이유는 이 사목이 다가올 미래교회의 방향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제기되는 청소년 교리교육이나 청소년 사목 방향은 쇠신하는 교회 전체의 일”<sup>92)</sup>입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고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을 거슬러 교황 프란치스코는 “신앙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를 우리 모두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신앙 전수의 방법을 ‘경청-동반-증언’이라고 제시합니다. 이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업적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사명인 ‘복음화 하는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쇠신하고 있으며, 이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sup>93)</sup>

---

92) R. SALA, *Incontro al fuoco vivo del Sinodo, Elledici*, Milano 2020, 256; A. SPADARO, *Una Chiesa che frequenta il futuro*, Ancora, Milano 2019, 14: “이 (시노드)는 교회에 관한 시노드, 교회의 사명에 관한 시노드, 동반과 식별(『최종 문서』, 91-113항)이라는 방법에 관한 시노드로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최종 문서 (*Documento Finale*), 118항 참조.

93)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너 자신에 대해 무어라 말할래?”(*Quid dicis te ipso?*) 라는 물음에 온화한 어머니처럼, 인내로운 스승처럼 교회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설명한다. 살라 교수가 환기시키듯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목 공의회’이다. 이처럼 ‘사목 공의회’가 되

‘복음화하는 교회’의 중심에 또 신앙 전수의 중심에 가정이 있고, 가정 안에서 부모는 ‘최초의 교리교사’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삶으로 증언해 줍니다. 그래서 신앙 전수나 미래교회의 성패는 가정에 있고, 가정생활을 하는 평신도에게 막대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신앙 전수를 위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탈세속화에 대한 전략도 없고, 신앙 전수의 방법에도 그리 큰 관심을 지니지 않았으며, 신앙 전수의 가장

---

는 것은 ‘현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는 ‘선교하는 교회’를 드러낸다.

하지만 공의회 기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교회 자신에 대해 설명한 수많은 이야기들에서 이해의 충돌이 일어나자, 공의회 폐막 20주년이 되는 1985년 특별 시노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교회를 ‘친교’라고 종합한다. 그리고 2년 뒤, 1987년 평신도에 관한 시노드는 “친교는 친교를 낳는 까닭에, 친교는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친교를 낳는다.”(『평신도 그리스도인』, 32항)는 유명한 문구를 남긴다.

그리고 2010년에 창설된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는 복음선포의 쇄신과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선교하는 교회’를 계승하며, 새로운 복음화를 강조한다.

이러한 흐름에 2013년에 호르헤 베르골리오 주교의 교황 선출은 복음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강조한 남아메리카 교회의 특별함이 전 세계 교회에 연결되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교황 프란치스코의 『복음의 기쁨』(2014)은 복음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초대한다. 특별히 2016-2018년에 젊은이를 주제로 한 시노드는 복음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 대해 심도있게 나누고, 특별히 교황 프란치스코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2019)는 젊은이들의 복음화에 ‘동반’을 강조한다.

아울러 개정된 『교리교육 지침』(2020)과 교황 프란치스코의 자의교서 『오래된 직무』(2021)는 교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리교사를 교회의 직무로 다시 설정하여 새로운 복음화를 증진한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2021-2023년에 시노달리타스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시노드는 하느님 백성의 사명인 ‘선교하는 교회’를 ‘친교’, ‘참여’, ‘사명’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다.”

큰 임무를 지닌 부모에 대한 교육과 양성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현실이 드러내듯이, 젊은이 사목보다는 노인 사목에 더 치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산교구의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님은 교구장으로 착좌하실 때부터 젊은이 사목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지연된 ‘젊은이의 해’를 준비하며, 2024년부터 3년에 걸쳐 ‘젊은이의 해’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미래교회를 위한 예언자적 메시지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회심과 실천을 바라는 것이며, 나아가 보편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부합한다고 여겨집니다.

“신앙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를 펼치는 ‘복음화 하는 교회’는 자연스레 교회의 구조, 사목의 패턴을 변화하기를 요구합니다. 보다 다가가고, 보다 경청하고, 보다 동반하고, 보다 증언하는 교회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쇄신의 요구는 젊은이 사목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이에게도 해당되는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기 아래에는 언제나 쇄신의 올바른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쇄신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만 합니다. 오래된 옷에 조각천을 덧대는 것처럼 교회의 쇄신을 생각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sup>94)</sup>

- 교황 프란치스코

---

94) AMEDEO PIVA, *Vuote le piazza vuote le chiese*, op.cit.

## 가정, 복음선포의 장

토론자 : 살레시오수녀회 / 황정섭 (루피나) 수녀

‘포스트 코로나’,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리를 설명하는 새로운 용어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 아래 함께 모여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성찰하고 다짐하는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먼저, 발제자는 우리 사명에 나아가기 위해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가 함께하기를 제안하며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시대가 지닌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언급하였다. 우리는 사회, 정치,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의 자녀’이며 지금 처해있는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세속화’와 ‘탈세속화’의 배경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발제자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복음의 기쁨」을 인용하여 ‘신앙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sup>95)</sup>에 대하여 말하며 신앙전수의 주체인 가정과 구성원인 부모, 자녀, 가정간의 복음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또한 ‘경청-동반-증언’의 여정에 따른 교리교육 방법에 대해 말하며 최초의 교리교사<sup>96)</sup>

95)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서문 III장의 제목

인 가정의 구성원들이 지녀야 할 교육적이며 실천적인 신앙 감각을 강조하고 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자의 교서 「오래된 직무」에서도 ‘가족 관계와 사회적 관계로 엮인 일상의 삶 안에서 평신도들은 “특별히 교회가 오로지 평신도들을 통해 서만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와 환경 안에서 교회를 현존하게 하고 활동하게 하도록 부름받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sup>97)</sup> 라며 가정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선포 방식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라고 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교는 보편적인 사명을 지니고 세상을 나서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처음 순간부터 모든 이들에게 신앙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최고 절정인 파스카 신비를 비롯해 비유와 기적을 통한 상징, 논쟁, 교육적 가르침 등으로 참된 복음선포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즉 예수님의 복음선포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이들과의 친밀한 만남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어진 기적의 행위, 말로써

---

96) 평신도 교령, 11항

97) 교황 프란치스코, 오래된 직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 6항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행위로써 깨달음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가르침이었다. 청중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처지에서 설교하였기에 청중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과 동거동락(同居同樂)하면서 가르쳤고 깊은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가르쳤기에 오늘의 교리교육에 귀감이 된다.’<sup>98)</sup> 곧 ‘공동체 생활은 교리교육의 원천이며, 교리교육의 장소이고 수단’<sup>99)</sup>이 되며 공동체는 구 성원들을 하느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그 자체가 신앙 성숙을 위한 살아있는 영원한 환경<sup>100)</sup>이 되는 것이다.

## 2. 부모들의 복음선포

인간이 접하게 되는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이다. 인간은 가정이라는 기초공동체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인격이 형성되며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본을 배우게 된다. 발제자는 이러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모와 자녀 그리고 가정들 간의 복음선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신앙전수의 주체인 부모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혼인성사로 가정을 이루는 남녀는 혼인예식에서 “두 분은 하느님께서 주실 자녀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그리스도와

---

98) 김영주, 서울대교구 성인예비신자 교리교육 실태 및 방법 분석,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대학원, 2008, 21.

99) 에밀리오 알베리치, 오늘의 교리교육, 최주영 외 2명, 돈보스코미디어, 2018, p347

100) 교리교육 지침, 158항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기르겠습니까?”<sup>101)</sup>라는 질문을 듣는다. 이것은 부모로서 교육할 의무 수행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린이 세례 예식에 있어서도 부모의 역할에 대해 뚜렷하게 확인한다. “여러분은 신앙으로 이 어린이를 교육함으로써 하느님께 받은 이 생명이 날로 더욱 풍요해지도록 도와 주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가르치는 대로 이런 중책을 맡으려는 것이니, 여러분 자신이 이미 받은 세례성사를 기억하며 죄를 끊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은 바로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교회의 신앙입니다.”<sup>102)</sup>

교회는 부모에게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의 의무를 다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자녀를 교육하여야 하는 중대한 의무를 지닌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첫째가는 주요 교육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부모의 교육 임무는 매우 중대한 것이어서, 이것이 없으면 거의 보완할 수 없다.”<sup>103)</sup>

오늘 우리나라의 가정은 부모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의 외부인들에게 위탁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정에서만 줄 수 있는 고유한 정서적인 교육은 물론 신앙교육 마저도 타인에게 혹은 교회에 의존하고 있는 듯하여 그 안타까움이 크다.

---

101) 혼인예식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역, CCK, 2000, 29항

102) 어린이 세례 예식서, 여러 어린이들의 세례 예식, 56항

103)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3항

### 3. 거룩한 성전, 가정 그리고 식탁(Altar)

유대인들은 ‘결혼을 ‘키두션’(kiddushin)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신성’, ‘구별’, ‘거룩’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결혼으로 결합된 남편과 아내는 지성소에 바쳐진 제물처럼 세상으로부터 구별 된다는 뜻이다.<sup>104)</sup> 가정은 배움과 가치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이다. 유대인의 가정이 거룩한 곳, 즉 성전인 이유는 유대인들은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그 제단에서 밥을 먹기에 식탁을 ‘Altar’ 즉 제단이라고 부르기<sup>105)</sup> 때문이다.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제사드릴 곳을 잃은 유대인들은 가정의 식탁을 성전으로 대신하였고 그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하루의 일을 나누고 신앙생활도 점검하며 부모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전수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밥상은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소일 뿐 아니라 가족의 전통과 지혜가 전수되는 교육의 장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엔 밥상이 사라지고 함께 식사는커녕 시간을 내어 마주하여 앉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인지 요즘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1인용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제품도 다양하고 맛깔스럽게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인 가구’, ‘혼밥’ 등이 유행하며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일은 집안의 행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정의 신앙교육과 신앙전수는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로 치부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

104) 이은주, 유대인의 가정교육, 종교문화학보 제16권 제1호, p109

105) 이은주, 유대인의 가정교육, 종교문화학보 제16권 제1호, p110

#### 4. ‘제대(Altar)’를 향한 ‘제대로’ 운동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루카 24, 30-32)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한 행위를 하셨다. 새로운 것도 없고 놀라울 일도 없는 집집마다 수없이 일어나는 일을 하셨을 뿐이다. 그지없이 평범하지만 우리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 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생명은 우리를 위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여러분, 친애하는 가정들과 부모 여러분, 그 생명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최후의 만찬 중에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체 성사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식사하려 모일 때에, 화목하게 함께 모일 때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임마누엘이십니다. 엠마오에서 그러하였듯이, 빵을 떼어 주실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루카 24, 35 참조).’<sup>106)</sup>

‘1인가구’, ‘혼밥족’이 유행하지만 우리에게는 ‘미사’, 즉 제대에서의 빵의 축성과 나눔이 있다. 흔히 우리는 ‘한술밥을

---

106)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가정교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p68~69

먹게 된 이들을 한 식구가 되었다'라고 말한다. 라틴어에서 '친구'라는 뜻의 'Companion'과 '회사'를 뜻하는 'Company'의 어원도 바로 '빵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는다.<sup>107)</sup> '식탁'에 모여 '밥'을 나누고 '빵'을 나누어 한 식구가 되듯 '제대'에 모여 성체를 영하고 체험을 나누며 서로 식구, 친구가 되어 사랑의 공동체, 참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영성체의 일치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바로 이 '친교(Communio)'의 시간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어 우리를 새로운 사명으로 파견하실 것이다.<sup>108)</sup> '제대(Altar)'를 중심으로 모여 생명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함께 식사를 하며 생명이 되신 또 하나의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도록 '제대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 형식에 치우쳐 옆사람은 보지 못하고 늘 해왔던 방식만을 고집하며 치루기식 '제대'가 아니라 늦은 시간 시험공부를 하고 지쳐 돌아온 자녀를 위해 따뜻한 밥과 국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밥상과 같은 '제대(Altar)'라면 얼마나 맛있는 식사가 될까.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

107) 라틴어 'com'은 '함께'라는 뜻이고 'pan'은 '빵'을 말한다.

108) 헨리 나웬, 정한교 역, 분도출판사, P76 참조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사도 2,46-47).

## 5. ‘제대로’ 운동을 위한 몇가지 제안

### 1) 함께 식사하며 삶을 나누는 대화 살리기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빠름을 쫓으면서 신앙과 삶이 이분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정은 복음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녀에게 부모의 ‘제대로’ 이루어진 신앙의 모습을 알려주고 또 부모는 자녀로부터 배울 수 있는 열린 ‘장’이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에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자녀들로부터 복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가정은 다른 많은 가정과 이웃에게 복음 선교자가 되는 것이다.”<sup>109)</sup>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식탁에 모이는 것이다. 하루 중에 기뻐던 일, 아팠던 일, 행복했던 일 등을 나누며 밥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 2) 가족이 함께 미사 참례

‘교회는 자녀들의 올바른 신앙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부모에게 주고자, 그들에게 부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부모들의 모임을 활성화하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

109) 현대의 복음선교, 71항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sup>110)</sup> 가정과 가정간의 자리 마련은 ‘제대(Altar)’에서부터다. 전례적인 분위기에서 각 가정의 자녀와 부모가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다면 성장 후 신앙관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더 큰 의미의 가족으로 나아갈 것이다.

### 3) 가족의 감사시간 혹은 감사 안수

저녁시간, 자녀가 침대에 들기 전에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감사의 시간을 가져보자. 돈보스코는 기숙학교 아이들이 잠 자리에 들기 전, 그날 학교 안팎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 뽑은 교훈을 짚막하게 이야기해 주었고 반대로 아이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들은 후 잠자리에 들었다.

돈보스코의 이 감사의 기도의 원천은 가족과 부모의 마음에 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에서 비롯한다. 수고와 피로에 지친 하루를 마치면서 내적인 균형을 회복하도록 친근한 어조로 긍정적이고 용기를 북돋아 주며 힘을 불어 넣어 평온한 저녁을 맞도록 도와줄 것이다.

---

110)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한국천주교 청소년사목 지침서, CBCK, p108

IV

**토론자 발표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토론자 : 청소년사목국 부모교육 담당 / 김 철 (토마스 아퀴나스)  
(감정코칭, 강점코칭 전문강사)

**논의 배경**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면서 향후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제시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신앙 전수의 방법과 자녀에 대한 복음 선포를 위해 부모에게 전제되어야 할 것, 그리고 부모에 대한 양성과 교육에 소극적인 교회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용어정의 및 재정의**

- 경청(傾聽) : 귀를 기울여 들음
- 청소년 사목 동반자 : 청소년 사목과 교육을 담당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청소년 전문가, 교리교사, 부모 그리고 청소년 사도 등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명칭
- 루틴(routine) :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통상적인 순서와 방법, 정례적인, 일상적인

## 논점 1. 신앙 전수의 방법(경청-동반-증언)

신앙전수의 방법을 ‘엠마오의 제자들’(루카 24,13-35)에서 찾고, 거기에서 강조하는 ‘경청-동반-증언’은 신앙전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방법이자 단계임에 동의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불안과 의심 속에 걷고 있던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그들과 동등한 친구요 친밀한 동반자로서 대화를 나누셨다.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셨던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정성껏 경청하셨다(루카 24,15-24)<sup>111)</sup>.

여기에서 ‘경청(傾聽)’이란 ‘귀를 기울여 들음’을 뜻하는데, 이는 ‘적극적 경청’으로 볼 수 있다. 적극적 경청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비판이나 판단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로 경청한 후 자신이 이해한 바를 다시 상대에게 전달하여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듣고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적극적인 피드백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 경청은 부정적인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sup>112)</sup> 또한 말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마음속에 담고 있던

---

111)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23항

112)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주현정 ‘청소년 부모 자녀의 의사소통과 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단원의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적용’ - 적극적 경청, 나전달법을 이용한 비교 집단과 갈등 해결 방법을 이용한 실험집단 비교-

감정을 외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경청(傾聽)’은 신앙전수를 위한 첫 시작 단계로서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고,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증진 시킬 좋은 방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청을 통해 친밀하고 마음의 문이 열린 다음에는 인격적인 친교를 이루는 동반자 사목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사목 동반자는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 개인적인 취향과 고민, 현실적인 삶과 고통에 대해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구체성<sup>113)</sup>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례로 한 교구에서는 고3 학생들이 늦은 시간 까지 공부하며 느끼는 배고픔과 외로움,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학원을 마치는 저녁 시간에 빵과 우유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응원 의 메시지를 전했다. 수능시험 후 고3 피정을 실시하자 200여 명의 고3들이 피정에 참여하였다. 이에 고3학생들은 “가장 힘들 때 큰 힘이 되어주어 신창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동반을 위해 구체성의 중요성과 인격적인 친교를 이루는 동반자 사목이 신앙 전수에 얼마나 중요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교회 안의 모든 구성원들은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

113)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56항, 구체성: 교리교육의 고유한 방법인 동화(同化)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들은 청소년의 구체적인 삶과 깊은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이 교리교육의 내용에 공감하고 “동의함으로써 사고(思考) 하는 믿음”을 지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사목 동반자는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를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범을 따르면서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청소년들에게 증언해야 한다.<sup>114)</sup>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살아가든 삶의 모범과 말의 증거로 세례를 통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새사람을 드러내고, 견진을 통하여 굳세게 해 주신 성령의 힘을 드러내야 한다.”<sup>115)</sup>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감으로써, 청소년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찬양하게 해야” (마태 5,16) 한다. 복음화의 첫 번째 동인(動因)은 자신이 받은 예수님의 사랑, 그분께 구원받은 자기 자신의 경험이기 때문이다.<sup>116)</sup>

그리고 경청-동반-증언에 이어서 신앙 전수를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한 가지 언급하자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생활의 루틴(routine)을 영유아기부터 성인이 되어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까지 심어주어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례력에 따라 루틴을 가지고 있다. 이 루틴은 대림 제1주일로 시작해 성탄, 사순, 부활, 연중 시기를 거쳐 그리스도 왕 대축일 다음 토요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부모는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루틴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여행을 갈 때 주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여행지의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야 하고, 성월(가족과 함께 묵주기도 바치기, 위령 미사

---

114) 「교회의 선교 사명」, 42항 참조.

115) 선교 교령, 11항 참조.

116) 「복음의 기쁨」, 264항 참조.

봉헌하기 등)과 대축일(미사 봉헌, 부활 계란 나누기, 성탄 카드 쓰기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교리 활동,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설명도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루틴은 자녀가 신앙생활을 체화함과 동시에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낳고, 자녀는 초등부와 중고등부, 대학. 청년을 거쳐 다시 부모가 되는 패턴에서 한 세대의 부모가 만들어준 루틴은 몇 세대를 거치면서 신앙 전수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 **논점 2. 자녀에 대한 복음 선포(부모 자신이 참으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전제)**

하느님께서서는 신앙의 성숙과 발전에 부모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신앙 전수는 부모 자신이 참으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전제로 한다.<sup>117)</sup> 하지만 결혼 및 출산의 기피 현상과 이혼율의 증가가 말해주듯이,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sup>118)</sup> 가정교회 본연의 소명은 계속 약해지고 있고, 부모의 영적 세속성과 지나친 교육열은 부모가 가지는 복음 선포의 의무와 권리를 망각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부모 자신의 바쁜 일상과 삶은 교회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이나 가정 관련 사목 프로그램의

---

117) 교황 프란치스코의 권고 「사랑의 기쁨」 (2016), 287항

118) 「가정 공동체」, 17항.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결국 부모 자신이 참으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전제<sup>119)</sup>되어야 함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이에 부모는 과거 자신의 신앙 체험과 교회 활동에 대한 회고를 통해 신앙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금의 부모 세대는 학창 시절 주일학교나 청년회 등의 교회 활동을 통해 신앙생활을 이어왔다. 그 시절 느낀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 활동의 열정, 화합과 친교, 거룩한 잔치에서 성장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신앙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꺼져가는 신앙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할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부모가 신앙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느님을 멀리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자녀에 대한 복음 선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모 스스로가 하느님을 먼저 찾고, 그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

### **논점 3. 최초의 신앙 선포자, 최초의 교리교사(우리 교회는 부모에 대한 양성과 교육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해 왔습니다.)**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에서 부모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2003년 2회 걸쳐 실시된 ‘부모신앙교육’이다. 이후 2004년 부모신앙교육 2회, 2005년 ‘성공하는 아이들의 7가지

---

119) 교황 프란치스코, 사랑의 기쁨,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6, 287항.

습관 / 성공하는 부모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주제로 2일간 실시되었다. 2006년도에는 '부모와 함께하는 자녀 성교육',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하여'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누어 각각 실시되었다. 2007년에는 청소년법인 (재)부산가톨릭청소년회에서 '자녀들의 발달 단계를 통해 본 하느님의 섭리하심'이라는 주제로 3회, '그리스도를 닮은 부모 역할'이라는 주제로 3회, '사춘기 자녀와 사춘기의 부모의 이해'라는 주제로 3회, '심리 검사 도구를 이용한 구성원들의 심리 이해와 부모와 자녀 관계 살피기'라는 주제로 3회를 교육하면서 부모교육을 다양한 주제로 여러 회차에 걸쳐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2013년까지 부모교육은 실시되지 않았다.<sup>120)</sup> 2021년에서야 '부모 동반 모임'(부모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2022년 부모교육은 사제, 수도자와 부모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위의 역사로 살펴볼 때 부모교육은 단편적인 일회성 교육이 주를 이루었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의 교육이 없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부모교육 자체가 실시되지 않았다. 교리 교사 교육이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된 것에 비하면 부모는 사목적으로 소외된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121)</sup>

부모는 최초의 신앙 선포자요 교육자<sup>122)</sup>다. 부모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증거는 자녀에 대한 애정과 존중을 통하여

---

120) 「부산교구 청소년·청년 사목 역사」(2020)

121) 「부산교구 청소년·청년 사목 역사」(2020)

122) 제2차 바티칸공의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1965) 11항

자녀들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자녀들은 부모들이 보여주는, 하느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기쁘게 산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그러한 최초의 체험은 흔히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결정적인 자취를 남긴다. 가정에서 체험하는 어린 시절의 신앙에 대한 깨달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가정에 대소사가 닥칠 때에 “그 사건이 담고 있는 그리스도교적 또는 종교적 의미를 설명해 준다면” 가정 교리교육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또한 자녀들이 장차 신자 공동체에서 받게 될 체계적 교리교육에 대하여 부모가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거나 이해하도록 도와줄 때 가정 교리교육은 더욱 견고해진다. 실제로, “가정 교리교육은 다른 모든 교리교육에 우선하고 모든 교리교육을 동반하며 풍요롭게 한다.”<sup>123)</sup>

그래서 부모는 ‘최초의 교리교사’이고, 주일학교의 성패나 미래교회의 모습은 가정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모에 대한 양성과 교육은 교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핵심 사업이 되어야 한다.

---

123) 성직자성 『교리교육 총 지침』(1997) 266항

IV

**토론자 발표 3**

##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교구 단계

토론자 : 前) 교구평협 회장 / 도용희(토마스 아퀴나스)

### 1. 함께 하는 여정

세계 주교회의는 지난해 10월 9일 교황청의 개막에 이어 17일 전 세계 교구에서 봉헌된 개막 미사로 시작됐다. 이후 교구, 국가, 대륙별 경청의 과정과 식별, 종합의 단계를 거쳐 2023년 10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재하는 본회의로 마무리 된다. 한국교회는 보편교회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시노달리타스’를 주제로 세계 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교구 단계를 진행했다. 교구 단계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노드 체험과 논의 내용, 의미와 성과, 후속 작업 등을 짚어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살피고자 한다.

#### 1) 시노드 모임의 어려움

시노드 여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시노드의 주제인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었다. ‘공동합의성’이라는 용어로 번역됐다가 그것이 원래의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시노달리타스’라는 원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할 만큼 이 주제는 한국 교우들이 이해하는데 문화적·언어적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과 현실로 인해 주의 깊은 대화와 경청의 자세가 부족한 게 우리의 현실이었다. 또 교회 안의 권위주의와 순종적 태도에 익숙한 신자들의 자세가 원인의 하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거리두기 역시 큰 현실적 어려움이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교구 단계 시노드 모임을 경청과 식별, 종합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경청은 시노드와 그 주제인 ‘시노달리타스’의 이해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했고, 본당, 기관과 단체, 수도회 등 공동체 영역과 단위별로 대화가 진행됐다.

## 2) 변화의 체험과 희망

초기 단계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경청과 식별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변화의 조짐을 체험하기 시작했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분명하게 공동체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 처음 시작 단계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이었지만 시노드 진행 과정에서 경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참여 신자들의 교회에 대한 책임감, 신자들의 신앙 감각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다는 느낌 등 변화의 체험들이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느님 안에서 길을 찾는 식별의 과정을 통해 결과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과정을 바라볼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됐다. 또한 교구민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점, 교회의 미래와 나아갈 길에 대해 함께 고민할 기회를 얻고 함께 대화하고 방향을 모색한 점이 기쁘고 희망적이었다. 힘들고 꺾끄러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듣기는 빨리하되, 말하기는 더디 하라”(1야고 19)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으며 경청의 과정에서 하느님의 말씀, 자기 내면의 소리,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 2. 시노드 여정

### 1) 시노드의 주제

교회는 세계주교시노드의 목표와 과정을 경청과 식별, 참여로 제시한다. 시노드는 하느님 백성 모두가 빠짐없이 초대되어 함께하면서 교회의 가르침과 서로에게, 그리고 성령에게 귀 기울여 경청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는 일이다. 경청이 시노드 과정의 방법이라면, 식별은 과정의 목표, 그리고 참여는 그 여정이다. 또한 시노드의 주제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이다. 교구 단계 시노드는 경청과 식별, 그리고 친교, 참여, 사명의 차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교황청은 특별히 시노드의 근본 질문을 논의하기 위한 10가지 주제와 그에 따른 질문들을 제시해 교구 단계 시노드 모임에

서의 경청과 나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 주제는 ①여정의 동반자 ②경청 ③발언 ④거행 ⑤공동 사명을 위한 공동 책임 ⑥교회와 사회 안에서의 대화 ⑦교회 일치 ⑧권위와 참여 ⑨식별과 결정 ⑩시노달리타스 안에서 이루는 우리의 양성이다.

## 2) 경청과 소통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부정적 반응을 설득해나가는 과정이 어려웠으나, 차츰 만남과 경청, 대화가 희망과 긍정의 태도를 만들어냈다. 시노드 교구 단계는 경청을 체험하고 배우며 익히는 한 마디로 경청의 여정이었고 경청의 학교였다.

시노드 모임에서 이뤄진 경청의 체험이 교구 하느님 백성의 변화를 끌어내는 체험임을 고백했다. 이 여정을 경험한 많은 이들은 시노드가 교회의 생활양식이라는 것을 새로이 배우고 경청과 식별, 참여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생활임을 알게 됐다. 물론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경청의 문화가 성숙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오래된 남성 중심의 문화로 인해 여성들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데 소극적”이거나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교회가 소외된 이들의 소리를 듣는 기회도 부족했다.

시노드를 통해 참가자들은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소통과 경청의 미비함을 인식하고, 경청의 체험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기대하고 희망했다. ‘시노달리타스’라는 주제 자체가 경청과

소통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부족한 것도 소통이었고, 가장 열망했던 것도 소통이었다. 거리두기 지침 속에서 만남의 체험이 가장 소중했다. 만나서 일단 좋았고 그 과정에서 경청과 소통의 의미를 자각해나간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 경청 모임은 신자들이 처음으로 자기 경험과 의견을 나누며 소통과 대화를 체험한 자리였으며 그 열망을 확인한 것이 시노드 여정의 성과 중 하나다. 소통하려면 경청해야 하고 경청하려면 존중해야 한다. 결국 소통에 대한 열망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3) 친교

‘친교’의 차원은 시노드 여정의 동반자로서 하느님 백성의 모든 계층 간의 소통과 경청, 발언, 그리고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라는 공동의 책임에 대해서 피력하고 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과 일치에 근원을 둔 교회 공동체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식별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저마다의 역할이 있다.

#### ① 공동체의 친교

교회 안에서의 친교는 사회적 통념과는 다른 의미로 “하느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우리가 모두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각자의 평등한 존엄성의 바탕 안에서 소외됨 없이 저마다 제 길에서, 그러나 함께 가야 한다”라고 일컬어진다. 모임을 통해 ‘하느님과 함께하는 자신과 교회 공동체의 친교’를 체험함으로써 ‘하느님의 자녀이며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으로 교회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체험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지 못한 이웃’을 찾아내고, 교회는 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럴 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마태 18, 20) 말씀대로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 ② 누가 공동체 친교서 소외되는가?

공동체의 친교에서 소외된 첫 번째 대상을 노인, 그 다음으로 젊은이로 보았다. 냉담 교우들, 소공동체와 신심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와 무관심한 언어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 개인주의로 인해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는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함께 걸지 못하는 이들’로 제시했다. 교회 안에서 인간적 친교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과 환자, 가난한 이, 냉담 교우, 장애인, 청년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젊은이들이 신앙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고, “신앙의 소중한 가치는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시대에 부합한 교육과 소통 방법의 제시가 절실하다”며 “청년들이 교회 내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미소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과 프로그램이 마련 되길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공동체의 친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기존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이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신앙기반이 약했던 이들이나 친교의 끈이 긴밀히 닿지 않은 이들은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 ③ 성직주의와 평신도, 동반자 관계

공동체의 친교, 경청의 결핍에 대한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 성직주의가 지적된다. 평신도와 수도자의 삶을 배려하지 않는 사목자들의 일방적인 사목 방식은 친교와 일치를 이뤄야 하는 공동체에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다. ‘본당 사제 중심의 본당 운영’, ‘의사 결정이 성직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 ‘교회 관리와 운영이 모두 성직자에게 편향된 모습’ 등을 비판했다. 하지만 동시에 평신도들의 자성에 대해서도 일침이 주어졌다. 모든 문제를 성직자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 오히려 ‘배타적 분위기의 공동체’, ‘세속적 친교 방식’을 버리고 ‘평신도 개개인의 독선적 태도’를 극복해야 한다. 평신도 스스로 대화를 필요로 하지만 대화에 나서는 것에는 수동적 이기도 하다. 따라서 결국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는 각자의 고유한 역할과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같은 존엄성을 지닌 동반자적 존재로서 서로 인정해야 한다.

### 4) 참여

‘참여’는 서로 깊이 존중하며 경청하도록 하느님 백성에 속하는 모든 이, 곧 평신도, 축성 생활자, 서품받은 이를 포함 하라는 요청이다.

## ① 일상화된 개인주의

개인주의의 팽배는 공동체의 친교에 큰 걸림돌이며 갈수록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의 경향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두드러진 개인주의 문화는, 특히 성사가 중심인 가톨릭 교회의 신앙과 삶을 위협한다. 비대면적 상황에서 이뤄진 온라인 전례, 신앙 콘텐츠 그리고 디지털 네트워크는 신앙 감각을 유지하고 신앙과 영성의 자본을 축적하는 데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나 변화와 쇄신을 향한 교회의 지향점은 단지 과거로의 회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표현과 형태로 교회를 변형시키는 동시에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온 신앙의 정수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찾아가는 사목으로서 본당 사목구 경계확장과 디지털 네트워크 확장, 사회적 공헌을 위한 공공영역으로의 경계 확장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했다.

## ② 시노드적 결정 과정

교회 안의 의사 결정 과정과 구조에 대한 이해와 오해가 엇갈린다. 교회 안의 소통과 의사 결정에 있어서 많은 비판적인 견해가 있었다. 소통에 있어서 수직적 권위 구조, 남성 중심의 교회 운영, 특권 단체처럼 기능하는 본당 사목 평의회, 신자들 사이의 대화 부족 등을 두루 지적했다. 시노드적 기구는 성직자 위주로 구성돼 평신도들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시노드적 결정 과정을 참여와 식별을 통해 ‘결정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목자의 고유한 권위에 의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목 평의회 문제, 독단적 결정의 관례에 대한 반발로서 교회의 의사 결정 과정을 민주주의와 동일시하려는 경향에 대해서도 경계한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시노더십’으로 칭하고 싶다. 홀로 앞에서 이끌고 가는 ‘리더’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와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 존중하며 하느님 뜻을 찾아가는 ‘시노더’로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 5) 사명

복음화는 교회의 사명이다. ‘시노달리타스’는 교회가 자신의 복음화 사명을 세상 안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선교적 차원을 지닌다. 시노드의 여정이 우리가 실현해야 하는 ‘사명’을 위한 것이며,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살고, 증거하며, 전함으로써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경청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특별히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는 교회의 당연한 사명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공동선 실현을 위한 노력 역시 강조된다. 현재 교회 안에는 인권, 노동, 환경 등 교회가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에 대한 더욱 깊은 관심과 참여, 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지나치게 이념적인 행동과 편향된 모습은 정치색을 띠 수 있기에 경계하고 교회 내적 일치에 충실해야 한다는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 3. 교구 단계 마무리

‘시노달리타스’ 끝나지 않았다. 쇄신과 변화의 계기 이어가야...

#### 1) 성직주의와 평신도 양성

교회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집중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성직주의다. 성직주의 혹은 성직자 중심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다. 이 문제를 훨씬 더 깊이 고민하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한다. 성과주의나 효율을 우선시하는 경향 역시 성직주의와 연관된다. 흔히 “나를 따르라”라며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신부들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는 결국 상명하달식의 문화와 구조다. 또한 평신도의 미성숙에 대한 평가도 같은 비중으로 지적됐다.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다. 교회의 모든 일들이 사제에게 몰려 있는 현실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평신도 봉사자들도 자기 주어진 몫만 하면 끝이다. 그러다 보니 사제 중심 현상이 더 극심해진다. 열심히 교회 활동을 했던 분들이 성직주의에 실망해서 교회를 많이 떠났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의 성직주의는 ‘**성직 의존주의**’의 성격도 다분히 있다. 모든 것을 성직자에게 의존하려는 태도는 필연적으로 평신도 양성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 시노드 교회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양성은 필수적이다. 양성은 역할이 주어지면서 이뤄져야 한다. 시노드 정신이 신앙과 삶의 방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경청, 체험의 공유를 통해서 양성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모두 각자의 신원에 알맞게 교육과 양성이 필수적이다. 경청과 대화를 주제로 한 평신도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점점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사회에 맞춰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도 전문적이고 다양하게 양성되어야 한다.

## 2) 교구 단계 후속 작업

교구 단계는 2년 동안 이어지는 시노드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쇄신을 위한 기초작업의 의미도 있다. 그런 면에서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

시노드가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후속 작업이 요청된다. 여기에는 ①성직주의에 대한 성찰 ②시노드 방식의 본당 사목 계획 수립 ③본당 건의함 설치 ④시노드적 교구 및 본당 사목 평의회 운영 ⑤평신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연구 ⑥소외된 이들에 대한 적극적 노력 ⑦지역 사회 사목 강화 ⑧시노드 교회 실현을 위한 로드맵 작성 등이 포함된다.

교구 단계 결과를 공유하고 교구와 본당 및 단체, 위원회 단위로 시노드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후속 계획을 수립하며 후속 조치 전담팀을 구성하고 교구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속에서 복음화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평신도 교육을 강화하고, 사목자들이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을 실현하도록 지도한다. 공동체 차원에서는 제 단체들 안에서 시노드적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수평적 관계로 대화하는 소통과

경청의 자리를 마련하고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교육과 피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신자 재교육 강화와 함께 성직 중심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참여와 대화를 위한 소통, 사제와 평신도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함께 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은 “이제 시노달리타스를 체험했으니까 돌아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잘해보자”라는 태도다. 이는 결국 이벤트가 끝났으니 일상으로,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시노달리타스’를 증진시킬 지속적인 기구, 교구 전담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각자 잘해라’가 아니라 공식 기구가 구성돼 집중적인 연구를 이어가고 교회 지도자의 의지를 담아 교구 내 모든 기구와 기관, 본당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첫 길을 내기가 어려운데 시노드 모임을 통해서 소통과 나눔을 위한 길이 났다고 생각한다. ‘시노달리타스’가 애당초 교회의 삶의 방식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를 갖고 지난 한 과정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후속 작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소한 작은 네트워크, 본당의 다양한 분과들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이 수립돼야 한다. 시노드적 교회 구조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세계주교시노드와 본당 및 교구의 사목 평의회가 그것들이다. 이미 존재하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진단과 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노드가 일회성이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논의 성과가 구조와 제도화로 이어져야 한다. 본당에서도 논의된 기록들과 체험들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쇄신과 변화의 계기를 이어가야 한다. 후속 작업은 이전의 모습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의 쇄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각 교구마다 특별히 교구자 주교가 직접 주재하고 특별히 선발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동참하는 사목 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 평의회는 사목 활동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심의하며(investigare, perpendere) 이에 대한 실천적 결론을 제시하는(expromere) 소임을 가진다.”  
(주교교령27, 교회법511조)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평신도들과 적절히 협력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사도직 활동을 돕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대로 교구에는 협의체를 두는 것이 좋다.”(평신도교령26)

공의회나 교회법에도 사제평의회 설치하는 의무지만 교구 사목 평의회는 권고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목 평의회 설치하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인다. 교회의 실존 방식이기 때문이다.

### 3) 지속적 참여와 쇄신

‘시노달리타스’의 뿌리는 초대교회, 가까이는 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바탕이 되며, 결코 교회의 삶에 새로운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교구 단계 시노드와 관련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두 가지 차원을 강조하고자 한다.

하나는 2023년 10월 본회의까지 2년 동안 이어지는 시노드 전 과정에 관한 관심과 참여, 또 하나는 시노드 교구 단계를 통해 얻은 체험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쇄신 노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세계주교시노드가 보편교회의 방향성을 다루는 만큼 자주, 강하게 논의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지만, 지역교회의 고유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경청과 대화의 체험이 지속적인 변화의 계기가 돼야 한다. 본회의까지의 여정을 지켜보면서, 각 지역과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끌어낼 의지를 유지하고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교구 단계가 마무리되고 교구 보고서가 곧 이어지는 대륙별 시노드 단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교구 보고서와 한국교회 종합 보고서는 시노드를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로만 그치지 않는다. 부산교구도 ‘시노달리타스’를 체험한 이번 교구 단계 시노드가 교구의 쇄신과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기회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본당별, 단체별 ‘시노달리타스’의 나눔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야 할 것이다. 시노드 여정 자체에서 함께하시는 성령을 체험했음을 고백하고 앞으로도 ‘시노달리타스’가 교회의 본질이며 존재 방식임을 의식하며 함께 걸어가야 한다.

**“교회와 시노드는 동의어이다” - 요한 크리스소스토모 -**

## <참 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022 추계 정기총회를 마치며 세계 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한국교회 종합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 의견서는 세계주교시노드 첫 단계인 교구 단계의 각 교구 종합 보고서와 교구 책임자 모임의 제안을 바탕으로, 시노드 예비문서와 편람에서 제시된 10개 핵심 주제에 따라 종합 정리한 것이다. 주교회의는 의견서 서론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백성이 시노드 교회의 친교와 참여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사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음을 가장 큰 수확으로 평가했다.

의견서는 결론에서 시노드 교회를 향한 다짐과 제언을 피력했다.

첫째, 백성의 모든 구성원들이 고유한 정체성과 사명을 살아가며 공통된 사명을 수행함을 지속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둘째, 사목 평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소통 창구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더 많이 소통한다.

셋째, 변방으로, 즉 소외된 이들에게로 나아가려는 교회의 근본 사명을 실천한다.

넷째,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 북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지원과 협력의 길로 나아간다.

다섯째, 생태적 회심에 따라 생태계와 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과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간다.

V

**질의 및 응답**

진행 : 선교사목국장 / 최재현 (베드로) 신부

VI

**총평, 교구장 말씀 및 강복**

진행 : 선교사목국 부국장 / 안원철 (펠릭스) 신부

1. 총평 - 총대리 / 신호철(비오) 주교

2. 교구장 말씀 및 강복 - 교구장 / 손삼석(요셉) 주교















